수필이 있는 풍경사진

권영주
푸른소아과.내과의원장
순천향의대 명예교수

#1 부르즈 할리파

현재 세계 최고 높은 건축물은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이며 그 높이는 829.8m이며 160층에 달하는 빛나는 자태를 자랑하고 있다. 일반 전망대는 456m높이의 124층과 125층에 있으며 고속승강기로 1분이면 도착한다. 테라스로 통하는 형태의 출입문이 있으며 360도로 걸으면서 주위를 조망 할 수 있다.

이 건물 주변에 우뚝우뚝 솟아있는 높은 건물들이 아주 아래로 보인다. 그리고 사이사이로 아직 개발이 안된 광야 지역도 있다. 끝없이 높아지려는 우리 인간의 욕구와 현대 건축술이 어우러진 한편의 거대한 작품이라 하겠다. 산유국의 부와 새로운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일신하려는 아랍인들의 꿈의 결정체이기도 하다. 부르즈 할리파에 딸린 건물 아래층들은 두바이 몰로서 세계 유명업체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거대한 수족관이 있으며 4만여 마리의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어 몰의 랜드 마크라 할 수 있다. 뜨거운 햇살을 받으면서 마천루의 최고점까지 사진 화각에 맞춰 전체 건물 모습을 담기 위해서는 몸을 땅바닥까지 낮출 수밖에 없다. 바깥기온이 열대 사막의 기온이므로 대부분사람들은 실내에서 지내게 된다. 현대 문명 덕분에 사막기온이라도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마술을 부리며 살고 있다. 자연환경을 거슬러 삶으로 해서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천막치고 모래와 하늘별을 벗 삼아 살았던 예전 사람들의 친환경적 삶을 아랍인들이 낭만적인 추억으로만 남겨야 할 것인가? 아니다! 현재는 현재인 것이다!

LOGMA

#2 돈키호테와 풍차마을

스페인 마드리드 교외 한적한 곳에 조그마한 옛 성체가 있고 그 구릉에는 여러 개의 풍차들을 볼 수 있다. 예전에는 그 풍차로 주변서 생산된 곡식을 정미하는데 사용했으리라. 이제는 돈키호테 모형을 그 입구에 세워 놓아 풍차를 수호하는 무사로 변신해 있을 따름이다. 그러니 돈키호테도 관광지의 풍차 지킴이가 된 현재의 모습이라 하겠다.

돈키호테라는 이름을 들으면 우선 16세기 작가인 세르반테스를 연상하게 되고 지금도 스페인의 대표작으로 여겨진다. 스페인 곳곳의 상점이나 관광지에는 돈키호테의 모형을 자주 목격하게 되고 모두들 좋아 한다.

귀족의 권위와 부를 거부하고 자유주의적인 엉뚱한 생각과 행동 보다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킨 풍차와 해학이 숨어 있다. 이 작품에서는 몇 가지 유명한 문구가 있다. 당시 풍차에 대한 돈키호테의 공격은 상징성을 띄고 있으며 많은 것을 함축한다고 본다.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고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며 잡힐 수 없는 사랑을 하기도 하며 높이 뜬 저 하늘별을 잡고자 하는 그 마음을 떠올려 보면서 사는 것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적과의 싸움에서 이겨 본들, 이루지 못할 꿈이나 얻지도 못할 사랑을 얻어 본들, 하늘의 별을 따 본들 큰 시야로 보면 그 무엇이 달라지겠나? 오직 나의 순수한 본래 마음만이 나에게 행복과 평화를 선사해 줄 것이다.